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본문

시편 116

생각하기

지난 여름, 나는 나의 학생들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콜로라도주 록키 산에서 길을 따라 에메랄드 호수까지 하이킹을 하였다. 그 길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산 속에 있는 파랑, 초록색의 작은 연못들, 길을 따라 녹아 있는 눈, 상쾌한 고산의 공기, 눈으로 덮인 산 꼭대기. 나무 사이의 굴곡과 오르막길을 거쳐서, 우리는 작은 언덕에 올라, 높은 정상 주변의 주변들을 살짝 느껴볼 수 있었다.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배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침을 얻었다.

그리스도 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여정과 비교된다. 험하고, 때론 믿을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는 하이킹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함께 붙여 주신다. 이 복음의 “일시적 중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16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 하고 난 후에,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7절에서 그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 평안을 얻으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평안을 얻어야 한다. 복음은 두렵고 떨리는 순례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의 관점을 복음의 넓이 안에서 보도록 촉구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이미 지불 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가족과 그 은혜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어 보자
- 마태복음 11:28-30, 히브리서 4:9-10; 10:19-25를 읽어보자. 우리에게 평안함의 자유를 누리도록, 예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인가?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는 시간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을 훈련하겠는가?

적용

기도

아버지, 당신은 은혜가 넘치시고, 정의로우시며, 긍휼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모든 것에 인내하고, 모든것을 믿고, 모든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아낼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y Greg Meyer

Greg Meyer serves as the Assistant Pastor to Youth at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in St. Louis, MO. Prior to coming to Covenant in 2015, he served churches in Mississippi and Georgia. He holds a BSE from Mercer University and an MDiv fro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